

■ 논 단 ■

한국교회 총체적 위기 상황을 파악하라

얼마 전 한기총에서 개최한 '2008년 정책세미나'에서 월간목회 발행인 박종구 목사는 주제발표에서 한국교회 병리현상에 대해 '부분적이고 자의적인 성경의 해석, 설교 포퓰리즘, 물량주의 가치관, 무속적 기복신앙, 오염된 신앙윤리, 선교의 세속화, 교회가기주의, 실추된 리더십, 수퍼 처치, 메가 처치 신드롬, 혼탁한 선거문화, 서구 종속적 신학, 열악한 기독교문화, 불투명한 교회행정, 일과성 이벤트문화, 미화된 회개운동과 열매 없는 성령운동, 대, 소 교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한국교회는 실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10년간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들은 양적인 성장을 이룬 반면, 기독교는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저마다 전도에 혼신의 힘과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한국교회는 요즘 세미나 천국이다. 말씀 사경하나 심령부흥회는 점차 사라지고, 각종 전도 집회와, 전도 세미나가 주종을 이룬다.

교회마다 전도에 목숨을 건다. 전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린다.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이다. 하지만 유독 교단만은 증가하고 있다. 신학교 또한 계속 늘어난다. 목회자의 숫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길을 가다가 뒤에서 '목사님!' 하고 부르면 열 명 중, 한명이 뒤를 돌아본다 '고하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거룩함과 신성함의 상징적 대상이었던 성직자의 존엄성과 가치가 많이 퇴색되어가고 있다. 불쌍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

불쌍하고도 괴로운 교회가 너무 많다. 세상 사람들한테 동정 받는 교회가 너무 많다. 목사와 교회가 불쌍해서 동정삼아 한 번 나가서 설교를 들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어디 참 교회의 모습인가? 동정 받는 교회, 동정 받는 목회자, 그들은 교회도 목회자도 아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동정 받는 대상이 아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할 이 시대 최고의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요, 사제(使者)들이다. 세상으로부터 동정이나 받는 교회와 목회자가 존재하는 한, 한국교회 앞날은 어둡고 캄캄한 밤이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간의 갈등과 상처, 무리한 교세확장과 전도방법, 지역사회 간 마찰과 충돌 등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교회의 평가는 그리 좋지 못하다.

얼마 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 밑바닥이다. 여기에다가 일부 대형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한국교회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 신학교의 난립과 여기에에서 배출된 대량의 합당비율 목회자의 양산으로 성직자의 권위와 신성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와 목회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속도주의, 물량주의, 실적주의, 결과주의가 빛은 신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총체적 문제점들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참된 영적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한국교회 전체의 위기다.

교회의 위기는 강단의 위기다. 종말의 시대에 종말을 설교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현실과 모습이다. 급속히 다가오고 있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부와 명예, 행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적 신학사상이 문제다.

기독교가 대 정부, 대 사회 곳곳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위 정치 성향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로 군림하는 한, 한국교회는 혼돈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

교회는 지배하는 그룹이나 영향력 있는 단체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고 짓밟히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눈물과 기도로 품어주는 참된 회생과 사랑이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해 큰 소리 치는 시대,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어깨를 으쓱거리는 시대는 건강한 기독교정신을 이어가기 어렵다. 기독교가 정치와 사회를 정복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정복하려고 할 때, 기독교의 순교적 침묵과 무저항 운동이 기독교를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든 것이다. 오늘날의 목회자들 또한 너무 권력적이고 지배적이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에 있었다. 그들 스스로 세상의 권력을 소유하거나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대형교회와 목회자들은 다분히 세속적 권력 지배주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다. 진정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섬김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형교회와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와 목회자를 섬겨야 한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 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어야말로 진정한 섬김 중에 섬김일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 군림하거나 지배하려는 의식이 깔려있다. 아예 외면하거나 무시해 버린다.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 한다. 거룩함을 가졌한 위선과 독선과 교만이 가득하다. 때문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대형 교회와 그들 목회자들에 대해 은연중 주눅(?)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종말론적 선지자의 사명감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수 있는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 마귀 사단은 종말시대에 종말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이단들을 통해 '허구 종말론'을 떠들게 해서 모든 교회와 성직자들의 입을 봉해 버리고 말았다.

성직자나 성도들 모두가 종말의 시대에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나눔과 섬김, 순종과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오늘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종말의 시대에 예비한 권력, 명예, 물질, 이 모든 것이 뉘 것이 되겠는가? 혹시 마귀 사단의 이용물이 되지는 않겠는가? 라는 물음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렇게 열심히 예비한 것들이 사단의 이용물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쓸모없는 것들을 예비하느라 정작 꼭 필요한 본질을 잃어 버렸다면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종말의 때에 열 처녀가 모두 등은 가지고 있었다. 등은 모양, 형식, 외형일 뿐이다.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기쁨이다. 본질을 밝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기쁨이다. 한국교회는 외형은 그럴싸하다. 아니 너무 화려하다. 하지만 속은 어둡다. 목회자들 역시 외형적인 모습은 완벽하다. 어느 목사의 명함은 학력과 경력, 직책이 하도 많고 앞, 뒤를 꼭 때우고 있다. 그들의 이름과 사직은 교계 신문과 방송에 날마다 도배질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목회 내면은 짙은 어둠이 깔려 있다. 사람들의 입에서 끊임없는 구설수가 오르내린다. 한국교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 또한 심각한 문제다. 내가 아는 어느 목사는 목회도 하지 않는게 4억 짜리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자랑한다. 요즘엔 만한 목사들 중에 수십억 원은 돈돈도 아니라고 한다. 나 자신은 참으로 초라한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떤 목회자는 전 재산이 5백 만 원도 안 된다고 한다. 월세와 공과금이 여러 달 밀렸고, 곧 쫓겨날 상황이라고 한다. 너무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이다. 외욕도 비전도 없다. 그럼에도 그는 목회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종말이다. 종말의 시대에 종말을 깨달아야 한다. 내일이 우리 종말의 끝임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겠는가? 종말을 말해야 한다. 이 시대, 세상을 향해 종말을 선포해야 한다. 세계 곳곳의 굶주림과 지진, 각종 질병과, 원유파동, 이상 기후 현상 등, 우주적 종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자. 한국교회 총체적 위기는 종말시대를 분변치 못하는 영적 감각상실에 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자.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인 금관교회는 망우리 공동묘지를 바라보며 종말을 선포하여 오늘날의 대 교회로 성장했다고 한다. 종말 설교하면 부흥도 안 되고 재미없어 교인들이 떠날까 두려워서 종말 설교를 하지 못하는가? 마땅히 해야 할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다른 말을 할 때,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엄한 책망이 있을 것이다. 종말시대를 분변치 못하고 영적 감각을 상실한, 이 시대 총체적 위기를 파악하고 종말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

본설교장 장승현목사

한국교회원로회, 간담회 갖고 시국성명 발표

美쇠고기 파동 관련 정치공세 중단과 정부 노력 주문



한국교회 원로들이 모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야기된 혼란을 걱정하며 불필요한 정치공세의 즉각적인 중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절하한 노력을 주문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한국교회원로회(회장 정진경 목사)는 5월 20일 엠베서더호텔에서 <한국교회 원로지도자 초청 특별간담회>를 가졌다.

1부 개회예배는 이강평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엄신형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김규섭 목사(공동회장)의 기도와 박종우 장로(여성위원장)의 성경봉독으로 이종성 목사(기독교학술

원 원장)가 '답대하 외쳐라' (사도행전 28:23-31)를 제책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한국사회에서 정의와 양심 그리고 정직의 덕목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은 부패의 철사줄이 국민들을 얹어 뿔 때 교회가 침묵했기 때문"이라며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양심으로서 교회와 사회를 향해 바른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기독교 원로들은 침묵이 아니라 힘써 발언함으로써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금출 장로(공동회장)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성원 장로(부회장)가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김재송 목사(공

동회장)가 '한기총의 발전을 위하여' 각각 특별기도를 인도한 후 이만신 목사(명예회장)가 축도했다.

이날 지진과 사이클론 등 중국과 미얀마 등 주변국을 강타한 초대형 천재지변과 조류독감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 등으로 야기된 국민건강에 대한 염려와 이로 인한 국론분열 등을 우려하며 영적 각성과 회개운동을 통해 교회가 국민통합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산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광우병 공포가 실제 이상으로 과장됨으로써 국민 모두를 두려움에 떨도록 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신뢰할만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견해에 반하여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학업에 전념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이 정치적 집회에 동원되고 선동당하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날마다 치솟는 원유 가격에 암울한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엔 힘을 모아야 할 이때에, 경제회생을 공약으로 내 걸고 철차민주주의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불과 삼 개월 만에 발목 잡아 뒤흔드는 이런 시도는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도 당면한 문제를 경화하고 성실한 자세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미얀마의 천재지변과 더불어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올해 다시 한

번 대량아사의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각종 재앙과 사회현상을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겸허하게 무릎을 꿇어 자성의 시간을 갖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절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한국교회는 도덕성 회복을 위해 철저한 자성과 회개 그리고 이웃 섬김에 솔선수범하고, 회생과 헌신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국론분열과 새롭게 출발한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식 정치공세를 개탄하며, 일부 언론은 현 정부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1. 정부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거울삼아,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국민 모두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한국교회는 미얀마와 중국에서 일어난 천재지변에 고통 받는 이재민과 대량아사의 위기에 처한 북녘 땅 동포들을 도우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 5 20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원로회 회장 정진경 목사 외 참석

옥한흠 목사 “목사들 속에 든 ‘독’을 빼야 한국교회 변한다”

“목사들 속에 들어 있는 야망, 큰 교회에의 꿈, 경쟁심, 사람 의식하기,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와 같은 ‘독(毒)’이 빠져야 한국교회가 변화됩니다.”

한국교계의 원로 중 한 명인 옥한흠 목사(사랑의교회 원로)가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 쓴 소리로 했다. 별세목회연구원 주최 제22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서다.

독 때문에 균형 잡힌 목회를 하지 못해 옥한흠 목사는 22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양관에서 ‘별세와 한국교회 변화’를 주제로 개막된 세미나 첫날 주제 강의에서 ‘목회자의 영성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옥 목사는 ‘목회자들 속에 ‘독’ 때문에 목회자들이 ‘균형 잡힌 목회를 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균형 잡치지 않은 목회’가 한국교회 전체에 퍼져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체질이 허약해졌고, 이로 인해 교회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 가치관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역으로 세상 가치관이 교회로 흘러든다는 것이다.

옥 목사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민연돼 있는 대표적인 ‘불균형’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그중 하나가 ‘설교’와 ‘가르침’의 불균형

이었다.

이와 관련, 옥목사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설교 만능주의’에 빠져 제자를 만들기 위한 ‘가르침’이 부족하다’면서 ‘설교가 교회 부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설교만으로 되지 않고, 가르침과 균형이 잡힐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설교와 가르침의 불균형, 그리고 메시지의 불균형

두 번째 불균형으로 옥 목사는 △믿음에 대한 강조는 하면서도 순종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특권은 강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냄 받은 소명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며, △세상의 복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면서도 하늘의 복은 외면하는 ‘설교’ 메시지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순종과 관련 옥 목사는 ‘구원받은 믿음은 순종의 열매가 온전히 따른다’면서 ‘순종이 온전히 따르지 않은 믿음은 ‘거짓 믿음’임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명과 관련해서는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모두에게 적용시키면서도, 은혜와 진리를 전해야 하는 소명은 소수에게만 제한시킴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헌신’이니, ‘자기부인’이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니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복에 대해서는 “세상 복이 곧 하늘의 복인 것처럼 가르침으로써 세상 복을 받지 못한 신자들에게 열등감을 갖게 만들었다”며 “성경은 하늘 복과 세상 복을 함께 언급하고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도들의 구미에 맞추려 하지 말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균형 있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옥한흠 목사는 ‘목사들의 성도 눈치 보기’에서 찾았다.

옥 목사는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려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뒤져도 설교할 본문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서 “편중된 메시지는 편식과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목사나 교인 모두에게 불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옥 목사는 “일례로 하나님은 세상 복을 약속하지만 무한하다고 하지는 않았음을 목회자는 정직하게 가르쳐야 한다”면서 “(메시지)균형을 잃고 반쪽 진리를 온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 메시지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옥 목사는 “성도들의 구미에 맞추려 하지 말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임을 알려달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면 마땅히 설교해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이를 반드시 시정하자’고 호소했다.



끝으로 옥 목사는 이날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성경신학 공부에 힘쓸 것, △양심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할 것과 함께 △자신들 속에 든 ‘독’을 빼낼 것을 당부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절)

지저스타임즈

jstimes.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 0-783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장: 정가남 목사	
이 사 장 : 전영춘 목사	
본지 이사 : 설유원	
고 문 : 임철환 목사(갈보리교회), 최종필 목사(도곡교회), 김용진 목사(동신교회)	
이 사 장 : 전영춘 목사	
상임이사 :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현병우 목사(임마누엘교회), 권세봉 목사(성도교회), 박복수 목사(조치원장로교회), 정재규 목사(대성교회), 오종실 목사(홍성제일교회), 임원소 장로(주)에듀알	
후원이사 : 권태국 장사(권태국 치과), 박두만 목사(금주학교장), 사원현 목사(새도교회), 홍영근 장사(기업인), 임용택 목사(노원교회), 전현구 목사(세기문교회), 정민호(금호성교회), 배근욱(간척설계사), 김민수(회사원) 손우진 장사(회사원), 최관근 목사(무안노교회), 김성익 목사(산동교회)	
대외지사 이사장: 박영우 목사(대전경일청 경복위원회 상임총무), 충청지사 이사장: 이기선 목사(양문교회), 논설위원: 송국장 장승현 목사(웨신 총무) 부국장 최정화 목사(사촌장신장로교회) 배준혁 목사(서북교회)	
해외지사 : 우간다 지사장 : 김기일 선교사, 호주 지사장 : 이종수 선교사	
미국 워싱턴 지사장 : 정형선 목사, 일본 지사장 : 전동욱 목사(매정)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 우곡교회/D12층 전관(주)에듀알 (內) 지저스타임즈	
인터넷신문방송 WWW.CPJ.KR (E-mail : webmaster@cpji.kr	
전화 : 011-468-6574 02-2272-5261	

(사)한민족행복찾기국민운동본부

한국 노숙자 선교 연합회

www.homelessness.co.kr

본부장 전영춘 목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87 무악빌딩 1층

☎ 02)392-8825 ~ 7 Fax 02)363-5562

인제양성 및 세계복음화

말씀 사랑 운동본부

본부장 김동기 목사

충남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산 30-1

☎ 011-9119-7661, 041)904-0675

제40회 국가조찬기도회, 기독교인들 앞장 서 달라

이명박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 지 되돌아보면서 더 낮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지난 5월 15일 오전 7시 코엑스 컨벤션 홀에서 열린 제40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낮아지겠다”며 “제 자신이 바르고 청아대가 바르고 정부가 바뀌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이라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정부의 힘만으로 어렵다” “법으로만 규제하기 힘든 일들은 국민들이 함께 해줘야 하

며 특히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수립 60주년의 의미가 더해진 이날 기도회는 국가조찬기도회(회장 : 김영진 의원)와 국회조찬기도회(회장 : 황우여 의원)의 주최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4천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설교를 전한 조용기 목사는 우리나라의 현재를 ‘가나안으로 들어서는 이스라엘백성’에 비유하며 “광야에서 이끌던 모세의 강권적인 시대는 끝나고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에 귀를 기

울이고 대화와 합의를 통한 정치적 기술과 인내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황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목표와 방향을 세워나가는 삶을 사는 지도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임신형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새 대통령과 국회가 모여 드리는 첫 번째 기도회”라며 기도회의 의미를 더하고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오직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은혜를 구하자”고 전했다.

특별 기도시간에는 ‘대통령과 국가 발전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김황식 대법관, ‘경제 번영과 민족 화합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김하중 통일부장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기도 드렸다.

한편, 14일 저녁 세계평화음악회로 시작된 제40회 국가조찬기도회는 16일 40개국 400여명의 기독교장인들이 자리를 같이하고 국제전선조찬기도회를 가졌으며 개성공단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회’를 가졌다.

2008 예총연 제3회 춘계수련회 가져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합회(이하~예총연)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는 5월 1일~2일까지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아름다운 먹을 선전하자”는 주제 아래 춘계수련회를 가졌다.

반정웅 사무총장 사회로 개회 예배가 시작되어 (분회 공동회장, 합동세원총회총회장)황병철 목사가 기도를, (분회협동총무, 태평양가혁총회총무) 김한수 목사가 성경을 봉독, 주순녀 전도사가 찬양을,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가 “아름다운 먹을 세우자”는 제하의 설교를 했다. 하나총회총회장 최용철 목사가 헌금기도를 이어 11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문 정연송 목사, 2북한 선교와 지구촌 선교를 위하여 공동회장 권주환 목사, 3)한국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4)예총연과 소속교단 및 단체를 위하여 공동회장(복음선교총회장)곽순종 목사가 각각 특별기도를 상임회장(열린총회총회장)유순임 목사가 축사에 나섰으며, 분회이사 김상봉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에 전 신천지 교육장이었던 신현옥 목사를 강사로 초청 “신천지 이만희의 정체를 밝힌다”는 주제아래 세미나를 열어 목회자 및 참석자들은 이단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나가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저녁 부흥성회는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박형용 목사가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란 주제로 설교하고 5월 2일 새벽예배에 오성철 목사 사회와 이순주 목사가 “지혜 있는 청지기”란 제하의 설교를 맡았다. 또한 김경희 목사는 “교회 정치”에 대해 강의를 했으며, 2부에는 기독교 교회 제모습찾기 138차 기도회 특강을 고희기 목사 사회로 김경희 목사가 “인격론” 강의를 이성원 목사가 특별기도를 했다. 이어 2일간의 수련회를 마치고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가 폐회인사를, 사무총장 반정웅 목사가 광고를, 다같이 주기도문을 부르고 문인구 목사(분회 이사)축도로 마쳤다.

지저스타임즈
www.cpj.kr

여의도순복음교회 제2대 담임 이영훈 목사 취임예배



여의도순복음교회 제2대 담임목사 취임식이 지난 달 21일(수) 오전 10 30분부터 12시까지 본교대성전에서 있었다. 동 교회를 창립하고 목회 50주년을 맞은 조용기 목사가 지난 5월 14일(수)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조 목사의 제후인 이영훈 목사(53세, 54년 11월 생)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이 목사는 동시에 교회를 치리하는 권한과 당회의 당회장이 되었다.

이영훈 담임목사 취임예배는 기독교 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지방회에서 주관하며, 또한 조용기 원로목사가 격려사를 축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임신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목사, 기하성 증경총회장 김성광 목사,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가 맡았으며 권은은 전 한기총 및 전 NCKC 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기하성 증경총회장 정원희 목사가 맡았다. 기도는 기하성 증경총회장 엄기호 목사, 서상식 목사가 나갔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종순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이동원 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이철신 영락교회 담임목사, (이상 국내), 뽕희 싱가포르 시티 허비스트교회 담임목사 등이 영상으로 이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을 축하했다.

이영훈 담임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장을 역임한 이경선 장로의 4남1녀 중 둘째 아들로 서울에서 태생이다. 어린 시절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며 일찍부터 순복음교회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대광고등학교와 연세대 신학과,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신학과, 한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한 뒤 미국 템플대에서 종교철학 박사 학위(교회사 전공)를 받는 등 정통 신학코스를 밟았다.

이 목사는 또한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와 순복음동경교회 및 미국 LA 나성순복음교회 등의 담임목사를 역

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순복음신학대학장을 비롯해 순복음 교육연구소 소장, 국제신학연구원 원장, 한세대 교수, 미국 베네디크대학교 총장, 여의도순복음교회 교무담당 부목사 등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대부분 요직을 두루 거쳐 왔다.

이 목사는 특히 90년대 초반 국제신학연구원장 시절에는 풍부한 신학적 지식으로 당회장 조용기 목사를 지근에서 보좌해 한국 교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 목사는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신앙을 중심으로 오종복음과 삼중축복을 강조하는 목회를 하게 된다. 이는 조용기 목사의 제자로서 조 목사의 신학과 목회방식을 계승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목회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목사는 평소 후덕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닌 합리적인 사람으로 교회 안팎의 신망이 두텁고 영어와 일본어에도 능통하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임니다. 존경하는 인물은 영적인 스승인 조용기 목사라고 했다. 저서로는 ‘펜스플라 기적의 현장-브라운스빌 교회’ ‘하나님의 성회 교회사 (편지) 등 다수의 한.영 논문이 있고, 가족으로는 박인자 사교전(한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의 사이에 1녀를 두고 있다.

웨신 남부노회 46차 정기노회 목사임직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남부노회 46차 정기노회가 4월 28일 목포시 연산동 만나교회당에서 개최되어 노회장 조광표 목사 집례로 1부 예배와 2부 성찬식을 가졌으며, 3부 제46차 남부노회가 개최되고 신언창 목사가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하고 이 자리에서 서기 김성남 목사 사회로 목사임직식이 거행되고 회계 박천위 목사 기도와 회의록서기 공유봉 목사가 성경봉

독을, 노회장 조광표 목사가 “내가 일군이 되었노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서기 김성남 목사가 임직자를 호명, 노회장 조광표 목사가 임직자들에게 오른 손을 들게 하고 서약을 가졌다. 안수위원 김재완 목사, 신언창 목사, 조광표 목사, 김성남 목사, 박천위 목사, 공유봉 목사 등이 임직자 박희배, 채중서, 리종안 준목에게 각각 목사로 안수를 하고 노회장 조광표 목사가 목사가 된 것

을 공포하고 임직패를 전달했다. 이어 증경노회장 김재완 목사가 권면을, 총회장 장창수 목사가 축사를, 임직을 받은 박희배 목사가 축도에 나섰다. 또한 이날 오후 1시 30분 노회가 속개되고 총회장 장창수 목사가 남부노회에 인사 및 격려사를 전달하고, 총무 장승현 목사가 남부노회 46차 정기노회와 목사 임직식을 축하하며 총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성명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약칭“하나님의성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중앙위원장 조용목 목사에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측(총회장 목사 장희철) 총무 박성배 목사가 2006년 12월 에 세교단(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측,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수호측,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하여 각 총회에서 통합을 위한 헌법개정과 통합된 임원구성을 위한 전권을 총회 결의로 받아오면 하나님의 개화심과 뜻으로 확신하고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였더니 2007년 5월 제56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의 총회결의로 세교단 통합을 위한 헌법개정과 통합된 임원선임 전권을 받아와 실시 않은 일이 현실에 실현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통합된 교단의 마무리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2. 세교단(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측 총회장 목사 김종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수호측 총회장 목사 양재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이용주) 통합추진위원회들이 모여 업무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통합특별위원회는 세교단 총회를 통합하

는 상임기구로서 의장에 조용목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3. 2007년 10월 15일 대한통일선언대회 및 감사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세교단 총회 대표총회장에 조용목 목사가 직무를 맡게 되었고 대표총회장과 통합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① 통합된 교단의 헌법통일개정(부칙 특별법 포함제본) ② 조직 및 정비 ③ 한사무실에서 세교단 총회 본부를 두고 운영하며 ④ 세교단 총회는 통합특별위원회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고 결의 선언 집행 되었다.

4. 통합추진위원회 및 통합특별위원회는 세교단이 2007년 5월 제56차 정기총회에서 전원 위임한 총회 결의에 따라 ① 2008년 5월 19일 세교단별로 전무처리 위한 사무총회(행정총회)를 소집하고 ② 통합된 교단의 통합총회를 2008년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통합교정보고 및 사무총회(행정총회) 오후 2시 성총회 및 감사예배를 드리기

로 결의를 하였다.

5. 세교단의 소속인 모든 교역자, 교회 성전 건물 및 부속건물과 부속토지, 각 기원과 학교법인, 유자재단 이사회, 재단법인 연금제회 및 “토지 등”과 물자들은 통합된 교단 즉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약칭 “하나님의성회”의 교단 소속이며 개인이나 어떤 단체도 세교단의 명칭 사용을 금한다.

6.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목사 김종남 서기 목사 서인식)가 2007년 3월 20일자 임원후보 접수등록 발송공문과 동년 4월 18일자 정기총회소집공문(2008년 5월 15일 정기총회 정정 공고 포함)과 공문 발송은 통합특별위원회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은 위법행위이며 그리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 및 통합특별위원회의 결의 및 업무를 불법, 무효라고 결의한 모든 행위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목사 김종남) 헌법위반이며 또한 동 교단 2007년 5월 제56차 정기총회 결의 위반, 통합추진위원회 및 통합특별위원회의 결의 위반이라 무효임을 천명 하며

2008년 5월 19일 제57차 정기총회(사무총회-행정총회) 보고서 및 의사자로 보고사항 중 실행위원회 회의보고 및 임원회 회의보고에서 제56차 총회에서 통합을 위한 헌법개정과 통합된 임원선임권을 통합추진위원회에 만장일치 위임 결의안을 보고사항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안전 결의사항으로 처리한 회의는 모두 총회 결의 위반 헌법위반으로 무효이며 또 제57차 회의를 진행하다가 2008년 5월 20일 이시 05분경에 박성배 의장이 동의 재청도 없이 정회와 20일 09시에 속회를 선포하고 퇴장한 것은 총회소집공고 위반과 회의법 위반이며 총회장 부총회장이 회의를 일으켜 퇴장하여 유고가 되므로 헌법에 따라 작전 총회장(장희배 목사이 총회장 직무 대행하여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보고사항 처리 후 적법하게 폐회하였으며 세교단 통합추진위원회 및 통합특별위원회의 결의로 2008년 5월 20일 개회하는 통합총회(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 (사무총회 및 성총회)의 불참자와 타 입안단체에 소속된 자는 본 교단 이탈자이며 자동 회원권을 상실한 자로 성명한다.

2008년 5월 19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약칭 “하나님의성회” 대표 총회장 목사 조용목

대 독 : 헌법개정위원장 목사 임종달 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측) 직전총회장 목사 장 희 열 / 전국장로연합회 회장 장로 이상철 교단소속 전 교역자 및 교인 기관 재단법인 학교법인 일 동

■ 칼럼 ■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멋지게 하는 말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 말이 맞는가? 과연 성경적 슬로건인가?



서명범 목사
공주공덕교회 담임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눅 19:10)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요 3:17)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10: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인간은 죄인이기에 구원이 필요하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늘 죄에서의 구원, 죄사함을 구원이라 한다.

(마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렘 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골 1: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기에 모든 개개인이 범죄와 비리 그리고 사회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도 죄로 부터 구원이 필요하다. 죄인인 인간들에겐 죄로부터 구원, 죄와 그 형벌로 부터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에게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구속, 곧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다. 죄인된 인간에게 무슨 인격적 변화나 삶의 질적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죄인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 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변화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근본적인 영적 변혁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런 죄로부터 구원을 주는 기본 소식이 복음이다.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한다. 죄와 그 형벌로 부터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하시기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 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면, 이 구원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이다.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사용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구원을 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뿐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복음전도의 일군이 되어 열심히 씨를 뿌리는 농부같은 뿐이다.

오직 구원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 시키기 위한 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도 씨뿌리는 농부같이 복음을 전할 뿐이지 실제로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멋진 듯한 슬로건을 내거는 것은 성경의 증거를 오해한 슬로건일 뿐이다. 도리어 성경은 변화 받아야 할 이들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인들 자신이라고 말씀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허황된 슬로건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변화”에 힘써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이 세대의 유행과 가치관이 무엇인가? 참모니즘 배금주의 숫자지상주의 물량주의들이 아닌가? 그리고 성적 방종과 탐욕이 아닌가? 또한 많은 물량과 많은 숫자가 옳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도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가 주 관심거리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진리와 참된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며 죄악된 세상을 책망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진리, 구원의 진리와 기독교 교리들에 대한 가르침은 한쪽 구석으로 몰아 놓고 용기와 위로를 준다는 명목으로 성경을 곡해하여 심리학 적 치유 시역에 몰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참으로 곡언아세(曲言阿世)하는 자들도 많은 시대 아닌가? 우리는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에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도록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에 의해 인격과 삶의 변화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세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지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기독교의 진리인 교리들을 더 많이 배워 가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나날이 늘어가며 세상을 채워 갈 때 세상의 변화도 올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슬로건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며 정진할 때 세상의 변화는 더불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고 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에야 이루어 지는 것이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실 그 때에야 세상과 만물이 새로워 지는 것이다.

(계 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우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변화를 도모해야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변화를 도모함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자.

■ 논설 ■

18대 국회의원들에게 바란다

성경을 보면 간음한 여인이 나온다.[요 8:1-11]

당시 모세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돌로 쳐죽이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하니 간음현장에서 들킨 여인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간음중에 잡힌 여인은 교편자(서기관, 바리새인들)들의 의해 예수 앞으로 끌려 나왔다. 여인은 두려움에 떨고있고, 어떻게든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교편자들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군중들 까지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릴친다.

그러나 예수는 잠시 침묵하고 이어서 선언을 한다.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순식간에 소란은 멈추고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모두가 돌아갔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Presidential System]를 표방한다.

그러나 각국의 수상에 해당하는 국무총리가 있고, 지명된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지만, 다분히 내각책임제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이를 두고 헌법의 특수한 성격을 이룬다고 한다.

시나브로 그렇게 지명된 국무총리 지명자가 국회에 나가서 참으로 별꼴을 다보게 된다. 그동안 몇차례 지명을 받은 고귀한 분들이 국회에 나갔다가 숨겨진 추악에 의해 하루아침에 부패한 사람으로 전락했다. 다시 말해 존경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히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렇다면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다 깨끗한가. 이렇게 가법계 질문을 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이세상에 의인은 한명도 없다.

속된말로 면지를 털면 안결릴 사람은 한명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만이 깨끗한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된 임기초에 임기말에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에 봉착했다. 국정철학도 국정운영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자칭 경제대통령으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어려운 경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줄 것을 기대한 국민은 많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정부와 국민 사이에 좋지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벌써 촛불문화집회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적 갈등이 치솟는 물가와 고유가 기름으로 인하여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다. 안

타까운 일이다.

18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8대 국회에서는 지금 현실적 어려움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가 원구성을 못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입씨름을 하다가 5월 29일 장관고시로 인하여 여야가 제각각 길로 돌아갔다.

국민의 의해서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으로 인하여 민생을 살피지 않고 국가 아닌 정위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많은 민생법안들이 자동폐기되었다.

그러므로 다시 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통과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쇠고기로 인하여 멈춰선 경의선과 같다.

18대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한다. 하루빨리 18대 국회원구성을 해서 서민들의 깊은 시름을 해결해야 한다. 광우병으로 인한 쇠고기 문제도 국회에서 들어와서 논하길 원한다.

먹살을 잡든 욕질을 해대든 아니면 치고받고 싸우든 국회에서 해결해야지, 장외에서 하는 것은 결단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촛불문화집회는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그 속에 국회의원들이 끼게 되면 정치적으로 변질되기 십다. 의원들은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을 위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한나라당 이해원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번 이의원이 제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14만 7000세대가 면제를 받는다.

이 법안을 눈빠지게 기다리는 서민들도 답답할 것이다.

어려운 과제부에 그나마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쇠고기로 인한 여야의 오랜만의 OK목장 결투로 미뤄지게 되었다.

여야의원들이여! 국회로 돌아오라.

국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주주의 원칙으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의 기본적인 정치로 선전해 주길 바란다.

촛불문화 집회는 국민들이 해도 된다.

최창희 목사
cjanghee@kbs.co.kr



(주)금호상조
1566-4428

“이제 경조사는 웰빙토탈서비스에 맡겨 주세요”

운구에서 장지까지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장례절차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할 때 내 가족의 일처럼 세심한 준비로 큰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주)금호상조는 관혼상제(장례문화, 결혼문화, 잔치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격 현실화와 고품격 서비스로 예약 및 행사를 대행해 드리는 전문회사입니다.

일반형 20,000×120회
고급형 30,000×100회
최고급형 50,000×100회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출동 대기중입니다.

직 원 모 집			
직 책	인원	자 격	보 수
지점장	0명	관리(조직)능력자	기본급+관리수수료
팀 장			영업수수료+각종 행사비
상 조	0명	무경험자 가능 30~50대 (보혈경력자고수익)	기본급(출근비)+영업수수료
설계사			각종 행사비
지 사	0명	회사규정 심사	영업비+관리수수료+ 각종 혜택 등 지원



관혼상제 토탈 웰빙 서비스 -

(주)금호상조

장례 행사 진행 절차

갑자기 닥칠 복잡한 장례절차 이제 안심하세요.

갑자기 닥칠 복잡한 장례절차 이제 안심하세요.

가입고객 전산입력 금융결제원 고객탕증거래 신청

(주)금호상조중서 및 약관발급 우편 발송 7-15일 소요

월불입금×100회 = 계약금액회원 가입과 동시에 효력 발생

월불입금×120회 = 계약금액회원 가입과 동시에 효력 발생

임종시 (주)금호상조로 전화접수 고객센터 전곡 1566-4428

상황접수 회원조회 고인성명 및 병명 확인

장례지도사 현장 파견

장례용품제공, 고인 사신수습및 빈소미련, 유족과 협의 종료, 기풍에따라서 알맞는 행사진행

염습및 입관, 제사 및 종교의식 진행

발인제 시간에맞추어 장의차배차, 장지로 출발안내

서비스 만족도 조사

(주)금호상조 가입혜택 종료

당사 대행 업무

• 공원묘지 앞선 • 묘지이상 • 식물및 조경 • 풍수지리
• 산역인부 • 여지일손 • 꽃상여 • 화환 • 도시락등

전국(대표) 1566-4428

홈페이지 : khsangjo.com

입양의 날 황수섭 목사, 보건복지부 특별공로패 수상

제3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화씨와 함께



▲ 뒤에 딸들이 황목사의 딸들, 안고 있는 아이들이 입양아들.

자신의 딸들 아들과 다운을 두고서도 98년 쌍둥이 아들(대한,민국)을 입양해 공개 입양 운동을 펼치며 글로 언동으로 많은 입양을 장려해 온 고신의

대 교목인 황수섭 목사가 지난 11일에 열린 제3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특별 공로패를 수상해 훈훈한 미담을 주고 있다. 입양의 날인 5월

11일은 가정의 달 5월에 한 (1)가정이 한 (1)명의 아이를 입양해 새로운 가정 (1+1)로 거듭나자는 의미로 제정되었다. 49년간 가정을 잃은 아동들에게 어머니의 손길을 베풀며 입양 활성화에 열정을 쏟은 김정숙 임마누엘 육아원 원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39명이 포상을 받았는데 연극인 윤석화 씨 등과 함께 황목사는 특별공로패를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특별공로패를 수상한 황목사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육도 많이 먹고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가족의 적극적인 응원과 여러 동료들의 위로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음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입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그리고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갈수록 지능화된 신종 사기, 조심

항상 빈틈을 노리고 있는 신종 사기단.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에 자신의 주위를 잘 살펴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빈틈을 노리는 신종 사기범들은 이 시간도 누군가를 엿보고 있다. 신종 사기범은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사기를 칠 목적으로 자신의 지갑을 두고 가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누군가 가이를 목격하고 선한 양심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들고 나온다면 그 낭 가지고 나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은행마다 CCTV의 성능이 좋아서 현금인출기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추적 가능하기에 일주일 안으로 경찰이 집으로 방문한다는 것이다. 쉬운 예를 들면 사기범은 현금인출기 앞에 지갑을 두고 나간다. 그걸 모르고 지갑을 훔쳐 일 하려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 주는 이도 있다. 사기범은 이를 미끼로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고 분실 신

고를 한다고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사진을 참고로 추적을 해 집으로 경찰이 찾아간다는 것이다. 신종 사기범은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하게 되는데 억울하지만 그 많은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 최근 어떤 이는 좋은 일 하려다가 4백만 원에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범인들이 미끼로 현금인출기에 놓아둔 지갑에는 겨우 만원뿐이었으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경찰에서도 그 계좌를 추적해 보니 10만원도 안 들어 있었던 계좌이며, 좋은 일 하려다 당한 사람을 경찰은 겨우 위로하며 앞으로 더욱 조심하라.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 되어가는 신종 사기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남의 일에 의문하는 싸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수 심수봉씨 CBS TV 출연 신앙 이야기



국민가수 심수봉씨가 5일 CBS TV '이혼 열, 누군가를 만나다' 프로에 출연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피워낸 노래들과 신앙 이야기를 공개한다. 심씨는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는 말에 교회에 가게 됐다.

지금은 고인이 된 언니의 권유로 신앙을 갖게 된 그녀는 '하나님을 믿은 후 많은 두려움이 사라졌다. 고 말했다' 이혼할 때 신앙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런 시련들을 통해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자신의 집을 개조해 와인 저장고를 만들었으나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크리스천 문화공간으로 용도를 바꿨다는 심씨는 이곳이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장소로 쓰이길 바랐다.

계산중앙감리교회 최세웅 감독 은퇴

찬하 원로감독 추대 최신성 담임목사 취임식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계산중앙감리교회가 5월 18일(주일) 오후 4시 최세웅 감독 은퇴찬하 원로감독 추대 최신성 담임목사 취임식을 가졌다.

중부연회 강천희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김승현 감독(성일교회)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수인계' 제하의 설교말씀을 전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의 은퇴찬하사 등의 순으로 은퇴 및 원로감독 추대식이 거행됐다. 계속해서 최신성 담임목사 취임식

은 한찬희 감리사(인천북지방)의 집례로 진행, 취임식 후에 이규학 감독의 축사 및 격려사와 국악찬양 등에 이어 최신성 목사의 답사, 표덕철 장로의 인사 및 광고, 이종복 감독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최신성 목사는 답사를 통해 '과분한 자리인 것은 모두를 아는 사실이 아니라면, 대교회에서 목회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겸손과 진실, 성실로? 임할 것이며, 젊음 바쳐 열심히 일해 볼 각오를 피력했다. (크리스찬21세기 제공)

광염전원교회 설립 20주년 목사위임 및 임직예배 드려

교회설립 20주년을 맞아 목사 위임과 임직예배를 지난 4월 26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윤석리 광염전원교회 담임 이기태 목사에서 드려졌다. 이날 교회는 이기태 목사를 위임케 하고

오명길, 김종석, 유순영, 등이 장로장립을 받았다. 또한 장로취임 김종천, 안수집사 김종선, 권사취임 최종식, 윤영옥, 박준우, 장순애, 배현숙, 이춘희, 유화순 등이다.

전주 바울교회 창립 25주년 기념하며 임직식 가져



세계선교, 영혼구령, 지역사회 봉사 비전 품고 정진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은 바울교회(원필연 목사, 좌측사진)가 11일(주일) 오후 4시 대규모 임직식을 갖고 교회 사명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

이날 예배에서 문사무열 목사(전 주지방법장, 아름다운교회)는 "충성되고 복된 삶" 제하의 설교말씀을 전했다. 명예장로 추대식과 장로취임식, 장로장립, 권사취임, 안수집사 임직 순으로 거행했다.

계속해서 전병일 목사(부총회장, 정음교회)와 송하진 전주시장의 축사, 김원태 장로(증경부총회장, 태평교회)와 신순조 목사(증경지방회장, 중앙교회)의 권면, 박훈용 목사(국내

선교위원장, 전주교회)의 격려사가 있었고, 임직자를 대표해 김창락 장로의 답사 등에 이어 김필수 목사(증경총회장, 인후동교회 원로)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담임 원필연 목사는 "그동안 바울교회는 끊임없는 전진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나눠주고 대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면서, 25주년을 기점으로 전북의 5만 영혼과 끝없는 세계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더욱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한편 1982년 전주시 다가동 지하 8평에서 7명으로 시작한 바울교회는 세계선교, 영혼구령, 지역사회 봉사의 비전을 품고 전 성도들이 한

을 한뜻으로 새벽기도회, 정오기도회, 석양기도회, 심야기도회 등 열심히 기도함으로 만들어진 교회이다. 그리고 1990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첫 선교사를 파송하고 중국에 진선교회를 설립하면서 우간다, 필리핀, 러시아, 네팔, 중국, 케냐 등 해외 24개국에 4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교회를 세웠다. 뿐만아니라 유초 등부로부터 대학청년에 이르기까지 국내 및 해외 단기 선교를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선교의 안목을 넓히며 차세대 선교 일꾼을 양육하고 있다. 장로예배는 1부에서 4부까지 드려지고 있으며, 5부 예배는 청년들과 새신자들을 위한 예배로 진행된다. 또한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예배와 중국어 예배 시간이 있다.

바울교회는 구역을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 이름으로 편성하여 각 구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다.

바울교회의 성장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가 담임 목사의 충실한 말씀사역과 목회사역이다. 둘째가 풍부한 찬양사역이며, 그다음에 뜨거운 기도모임이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선교 지향적 교회를 표방하며 300 해외 지교회와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으며, 마지막에 인터넷 및 영상물을 목회에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찬21세기

신문고

목사안수를 함부로 남발하는 한국교회

목사의 조건과 자격은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행에 있어 인격을 갖춘 조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각 교단에서 인정하는 목사의 조건과 자격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격차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과거 목사안수 남발로 인해 교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목사가 되기 위해 교단 발전 기금으로 거액을 받고 안수를 주는 일은 아직도 비밀비재하다. 신학교의 정규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개척을 하면 목사안수를 주는 교단도 있다.

몇 개월 동안 신학교정을 숙성반식으로 목사안수를 주는 등 아직도 엉망진창으로 목사안수의 남발은 심각하다. 교단 내에 법으로 보면 엄연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 중소형 교단 가운데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번 제보 몇몇 신문사들이 취재한 결과 장로교 교단 중에 장자교단이라고 할 만큼 강원도 모교회 전도사가 여 집사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목사안수 문제를 놓고 강원도 모 노회 정치부 안에서 정론이 되었다. 안건의 쟁점은 목사안수를 무조건 주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라 근신하는 차원에서 목사안수를 차후에 주자는 의견과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자는 의견으로 분립이 되었다.

안수대상자의 모 전도사에 대한 이성문제와 재정문제도 대두되어 이미 노회 안에서 안건이 올라와 거론이 된 상태였다. 그런데 노회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고 목사안수를 주고 말았다. 이에 격분한 정치부 장로들이 반발이 심하였지만 유아부야로 넘어가 노회 안에 분란이 된 상태다.

앞으로 여러 신문사에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고 계속 취재와 인터뷰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와중에 신문고에 게재하는 이유는 한국교회에 내놓으라고 자부하는 교단에서 여러 문제로 불거져 올라온 안건을 법의 질서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하는 기관에서 법의 잣대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처사를 실행한다면 한국교회의 앞날은 막막하기만 하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 방송에서 부

적절한 목회자와 교회를 지책하는 방송을 하여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인데 이러한 일들이 강원도 모 노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방과 도시 안에서 교회와 노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신문에 게재하며 예방과 권고 차원에서 전하나 대면하여 대화로 풀어나갔다.

그런데 이번에 일은 너무나 도가 지나쳐 우선 지면으로 진행되어지는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 일을 노회 차원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교계신문, 더 나아가서 일반 언론들이 기사로 다뤄진다면 기독교의 치부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노회 정치부의 정쟁을 더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목회자의 조건 자격을 좀 더 확대했다면 하는 바람이며,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기 전, 교회에서 임장표명을 노회 차원에서 잘 받아들이 목사안수하기 전에 근신하는 차원에서 목사안수를 보류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판단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석교회

담임 정재규 목사

(우 153-837)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3-64번지

☎. 02)803-4549

1구좌 1만원 후원 천사를 모집합니다

지저스타임즈와 인터넷방송 www.cpj.kr 운영을 위한
평생 1004 후원회원을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농협 계좌: 455030-56-005509 (예금주: 정기남)

신현욱씨 신천지(이만희)를 탈퇴 그들의 정체를 폭로



2008, 예총연 제 3회 춘계수련회에서 신천지 이만희의 정체를 밝힌다는 주제아래 강사로 나선 신현욱씨 그가 신천지를 탈퇴하여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 신현욱씨 그는 1982년 예장(합동) 한민교회에서 수제, 1986년 신천지 입교, 1987년 신천지 지교회 동문교회 전도사, 1988년 신천지 본부 교회 청년회장, 1991년 신천지 본부 교육 강사, 1992년 신천지 요한지과 새빛교회 담임, 1995년 신천지 총회 7교육장, 2006년 신천지에서 탈퇴했다.

신현욱씨는 신천지(이만희)의 모든 정체를 밝히고 있다.

1. 신천지 교리의 뿌리에 대해서

이만희는 장로교 신앙을 가진 자였다. 그러나 자칭 성경의 인도로 당시 생수로 신유의 능력을 베푼다는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한국교회 이단의 대부적인 박태선의 전도관에 입교한다. (주 : 성경께서 왜 하필 이단으로 인도하셨을까 하여 여러 사람이 확인해본 결과 솔직히 말 못할 사연이 있었음)

그곳에서 다시 전도관에서 탈퇴한자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면서 집단 취락을 형성한 과천의 세칭 어린 종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거쳐 장막성전의 일곱 천사 중 하나였던 자칭 하나님 백만봉의 제자로 들어간다. 그후 1980년 3월 14일 백만봉의 시한부 종말설의 불발과 함께 신천지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1960년대 이단이었던 과천의 장막성전이 정통교회로 개척되는 과정의 일련의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실상이고, 이만희 씨와 홍종효 등 둘이 두 증인이라고 주장한다.

그 후소위 실상이라는 허황된 교리 위에 통일교와 그 이류인 진진화씨의 생명교회 출신이었던 '신탄'과 '계시록의 진상'이란 두 권의 책이 출간되면서 신천지 교리의 뿌리와 골격이 대체적으로 형성된다.

한마디로 전도관 신앙촌의 박태선, 과천 어린양 유재열, 이만희가 잠시 파팠던 자칭 실로 하나님 목영득씨, 자칭 아버지 하나님 백만봉 씨, 통일교의 문선명씨, 생명교회 진진화의 각종 교리이다 전도관과 장막성전을 거쳐 천국

복음전도회를 설립했던 자칭 재림예수 구인회와 새빛등대중앙 교회를 설립한 자칭 다른 보혜사 김종일씨의 '실상교리'와 '성경의 짝을 찾는 비유풀이' 교리가 신천지에서 절묘하게 만나 어떤 이단교리보다도 중도성이 강한 독주가 탄생했으니 이것이 소위 비유풀이와 계시록의 실상으로 대표되는 신천지의 교리이다.

그 후 1987년도 9월의 시한부 종말설이 불발된 후이만희 씨가 직접 계시록 해설서를 수차례 걸쳐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출간했다.

2. 신천지 교리의 핵심에 대해서

과천 장막성전에서 시작된 계시록의 실상교리

신흥 이단 교회였던 과천의 장막성전이 정통 교회로 개척되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을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꿰어 맞춰 실상이라 한다.

예 유재열 그는 계시록 12장의 해를 입은 여자이며, 초림 때 길 예비 사자 세례 요한의 입장으로 온 사람, 유씨 부자 등 일곱 사람은 배도자로서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진 일곱 별, 개혁의 주체였던 오목 목사는 멸망의 아들, 이방사람의 아내 밧세바에게 나서 이방신을 섬긴 솔로몬과 같은 자, 또한 땅에서 올라온 666집중, 뱀, 일곱 머리에 속한 여덟째 왕,

이만희와 홍 모씨, 이 두 사람이 옥고를 치른 사건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 고 탁00 목사는 계시록 17장의 음녀이며, 청지기 교육원은 계시록 18장의 바빌론, 유재열의 해의 유학은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양육 받는 사건 등으로 가르친다.

이만희는 이를 배경으로 자신을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계시록의 실상을 사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증인, -계시록 1~4장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성령이 임해서 7월에 개 편지하고 하늘에 올라간 사도 요한 같은 자, -6장과 예수님께서 타신 배마, -10장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온 열린 책을 받아먹고 가르치는 약속한 목자, -12장의 여자가 낳은 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아이, -1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어린양의 신부, -2장 ~3장에서 나

골라당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룩한 성이 함께하는 이긴자, -마태복음 24장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한마디로 이만희는 신천지에 빠진자들에게는 말세에 약속한 목자, 사도 요한과 같은 사망자, 말세의 구원자, 오늘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메시아, 그리스도인인 셈이다. 게다가 신천지 교회는 계시록 15장 5절에 약속된 증거막성전이고, 계시록 14장 1절에 144,000명이 서 있는 시온산의 실상이며, 이곳이 말세에 약속된 성전과 구원의 처소라고 주장한다.

성경의 짝을 찾는 비유 풀이에 대해서 위와 같은 실상 교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교주형 이단들이 반드시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비유풀이다. 성경 예언에 실상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어진 사실에 성경 예언을 맞추는 것도 아닌 있어진 사실도 예측하고 성경 예언까지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다. 비유풀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해서 성경의 예언을 보는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신학원 인도 전 단계인 소위 복음방과 신학원 초등 과정에서 비유풀이를 통해 잘못된 설계 도면을 주입식으로 세뇌시킨 뒤 그 도면대로 만들어진 계시록의 거진된 실상이라는 건물을 소개한다. 게다가 예언과 성취, 비유와 실상을 짝 맞추듯 하여 전문적인 성경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은 더구나 계시록 등 예언서를 자주 접하지 못한 성도들을 미혹케 한다.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입버릇처럼 강조한 이사야 34:16의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고 전제하고 성경에서 성경을 영어단어 공부하듯, 수확문제를 공식에 맞춰 풀듯 한다. 문장이나 비유의 말씀이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화자의 의도를 찾아야 함에도 단순히 낱말을 연결하는 식의 해석을 시도하다 보니 논리의 비약 차원을 넘어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뱉나가며 결국 거짓된 실상을 합리화하는데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근간에는 사 34:16의 짝이 말씀의 짝이 아니라 짐승의 짝이라고 점자 수정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비유한 씨는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새는 뿔, 물과 불과 양식과 빛은 말씀, 그릇은 사람의 마음, 도장과 나팔은 사람, 말은 육체, 왕과 소와 도은 목자, 우상은 진리의 말씀이 없는 목자, 무덤과 바빌론은 진리가 없는 교회, 산과 배와 도나라는 교회, 해는 목자, 달은 전도자, 별은 성도, 섬과 강은 목자와 전도자라고 가르치고 있다.

전혀 사실 무근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지만 환원적으로 대입할 시 심각흔한 성경 왜곡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성경 해석인데도 이런 성경 공부에 생소한 성도들은 많은 경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미 계시되어 성

경에 해석해 놓은 것도 마지막 때까지 봉한 책이기에 누군가 와서 계시를 받고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요 재림 때 한 목자가 나타나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결국에는 이만희가 계시 받고 퍼놓은 책을 받아먹고 약속한 목자로 증거하는 수준을 밝아 간다.

신인합일(神人合一)과 육체 영생교회에 대해서 시온산인 신천지에 인 맞아 생명책에 녹명된 자총회 교적부에 등록된 자 144,000명이 차게 되면, 영계의 144,000명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육체의 144,000명의 육체에 임하여 하나 되는 신인합일(神人合一) 곧 영적 결혼과 같은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교리이다. 그러면 순교한 영과 하나 된 신천지 성도 144,000명은 영생 불사체(永生 不死體)로 변화받아 죽지 않고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신천지에 와서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직 신인합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빨리 죽음을 끝내려면 어서 속히 144,000을 채워야 한다고 어느 한 때가 아닌 수를 채우는 조건부 시한부인 셈이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허황되고 거짓된 육체 영생교리에 눈이 멀어서 좌, 우를 돌아보지 않고 사생 결단식으로 전도로 매달리는 것이다. 기성 교회의 기복 신앙을 비판하나 따지고 보면 신천지 인물만큼 기복적이고 미신적이며 욕심 많은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죽지 않겠다고 애쓰는 것을 보면 말이다.

3. 이만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실제 예(예) '신천지 홈페이지의 '하늘 신문고' - 신앙점검문제에서 발췌한 내용 성경에 약속한 목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에게 임하였고 다시 오는 예수님은 신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긴 자에게 임한다(계 3:12, 21).

구약에 약속한 천국은 예수께 임하였고 신약에 약속한 천국은 이긴 자에게 임한다(계 3:12)

구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목자는 예수요 신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목자는 이긴 자 보혜사이다(요 14:26).

예수께서는 구약에 약속한 대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가셨다. 그러나 재림 때의 이긴 자는 신약에 약속한 대로 새 땅인 영적 열 두 지파를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 창조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구약을 이룬 초림 때 영생하는 양식을 가지고 오는 목자는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자이다(계 2, 3; 12:10~11, 21:7).

구약의 예언대로 온 그리스도(고전 15:3-4)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요3:18 신약의 예언대로 온 예수님의 사자(계 22:16) 이긴 자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께 심판을 받는다.

지금은 재림 때요 각자 자기 신앙을 점검할 때다. 인월한 마음으로 성경을 몰라도 된다는 거짓 목자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등과 기름과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 등과 기름과 기름 파는 자와 예복(마25:1~13)이 무언인지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것들을 예비할 수 있겠는가? 예비하지 못해도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시온기독교신학원에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과 기름과 예복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준다. 누구든지 하늘의 신문고를 두드리

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얻는다.

이긴자에 대한 증거 요5: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나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1) 우리 신앙인이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2) 예수께서는 왜 구약 성경이 당신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3)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약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 참고 : 신약 성경에는 교회들을 위해 예수께서 보내시는 한 사자가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그 뜻을 모른다면 주의 사자가 온다 해도 저버리지 않겠는가?

▶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물

예수께서는 구약대로와서 구약대로 행하셨기에 그가 나기 전에 미리 기록된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거물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일5:13) 우리는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생을 증거하는 책이라 하여도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왜 성경이 영생을 증거하는 책이라 하지 않고 당신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증거와 영생의 실체가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영생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자이다(골 37:1~14, 요 5:25-29).

영생은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영생 얻기를 바라시고 예수를 구약에 미리 알리셨으니 예수를 알리는 성경은 결국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구약을 상고하였으나 그 뜻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를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면(사29:10-13) 예수를 알 수 없고(요 17:3)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마11:27)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요17:3). 이를 바꾸어 말하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그분이 증거하신 예수도 예수 증거한 영생도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 신약은 이긴 자에 대한 증거물

신약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긴 자에 대한 증거물이다. 신약에는 그의 출현과 사명이 이미 모두 기록되어 있다. 재림 때가 되면 이긴 자가 신약의 예언대로와서 행하게 된다.

이긴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것을 가르치는 보혜사 성령(요14:16, 26, 요 16:8-15)이 함께 하는 자요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스런 종(요마24:45-47) 교회들을 위해 보배 받는 예수님의 사자이다(계 22:16). 또한 일곱 금 촛대 장막에 침노한 니골라당과 싸워서 이김으로써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감추었던 만나, 흰 돌, 만국을 다스리는 칠장과 예수님께 받을 자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주시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계2~3장).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신약을 깨달아야 한다. 신약을 깨닫지 못하면 신약에 약속한 목자 이긴 자를 알 수 없고 재림 예수님과 하나님도 알 수 없으며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온기독교신학원 하늘의 신문고를 두드리라. 열린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신약에 약속하신 목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온기독교신학원 : 예 시온기독교 무료신학원이라 하며 그 뜻은 무엇인가?

▲시온의 뜻 : 자연(하나님의 빛의 처소)

▲기독교 :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무료) : 성경대로 대가없이 은혜로 주는 것(사55:1~3, 계22:17)

▲신학원 : 신을 가르치는 집

성경에 기록된 시온은 지명과 인명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성경에 약속한 시온은 인명과 지명을 병자한 것이다(참고 - 사60:14, 속27, 계11:3).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수되어 갈 곳 시온을 알고 신앙해야 한다. 시온 기독교 무료 신학원은 배도, 멸망의 일 후 주 재림 때 창설되는 시온산에 들어가기 위하여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성령이 없는 목자들이 핍박을 목적으로 본 신학원에 대해 가지각색으로 비난을 하고 있으나 그 비난은 성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온 기독교 무료 신학원을 약칭하여 시온 기독교 신학원, 시온 신학원, 무료 신학원으로 부르고 때로는 평신도 신학원, 신학교육관 등이라 하기도 한다.

일부 목자들은 핍박 하는데만 활안이 되어 이것까지 문제거리로 삼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신학은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하늘의 깊은 것(고전2:10)을 알게 되고 가르칠 수 있다. 이 성령의 교육은 약속대로 시온산(계14:1-3)에서만 있게 된다. 세상 신학을 천년, 만년해도 시온신학을 공부하지 못하면 새 노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날 신현욱은 신천지 실상은 철저히 조작된 허상이며 수많은 이단을 전전하며 이만희 자신이 속했던 교리를 짜집기하여 만든 모방 작품이며 이만희는 절대 육체로 영원히 살지 못한다며 간절히 기도하기는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교주 사후에라도 또 다른 구원자, 계시 받은 자, 이긴 자, 보혜사를 찾지 말고 성경이 증거하는 오직 한분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비란다고 했다.

돌아온 땅자의 비유에서처럼 집나가 봐야 부모와 가정의 소중함을 알 듯 신천지의 경험이란 큰 상처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 덕분에 첫 금줄하신 우리 주님의 품이 얼마나 포근하고 귀한지를 절실히 깨달았다고 한다.

기존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어 헛된 곳에 종노릇하는 많은 피해자들을 대함에 그들을 타도와 비난의 대상이기 전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며 집나라 탕자로 여겨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해 주며 깨닫고 돌아키고 올 때는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 달라고 했다.

끝으로 이만희 교주와 싸우는 인터넷 카페<갓피플 바로 알자 신천지>, 네이버 블로그<주님바라기>를 소개하고 신천지의 많은 정보가 있다며, 그들과 싸우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다.

현직 구원파 교역자 양심선언



구원파, 자신들만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은 우리 기도만 들어주신다”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협박 “각종 비리 곧 폭로할 것”

“구원 받지 못한 다른 이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구원 받은 우리의 기도만을 들어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즉 구원파에 나오는 구원파내 성도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기독교이단사비변연구대책협의회는 29일 여전도회관에서 구원파(이요한파) 현직 교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배삼범 씨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배 씨(구원파 내에서 목회자로 활동)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체인 이요한 씨는 정규신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으며, 기성교회 모든 목사들은 한결 같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설교한다고 밝혔다. 또 구원파는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회개와 믿음을 도외시하며 구원에 대한 깨달음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씨는 자신이 양심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요한 씨의 측근들로부터 “이요한 총재 위치라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협박을 2번이나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배 씨는 구원파가 이단이 아니라는 내용이 실린 기독교 평론신문 약 3만 부(1부당 일천 원)와 <정통과 이단> 책자 1만 여부(권당 1만8000원)를 개인 성도들이 사도록 했다고 밝혔다.

배 씨는 현재 구원파(이요한 계열) 내에서

의 각종 비리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다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 씨는 1984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입교, 1994년 교역자(목사)로 임명을 받아 광주교회에서 시무해 왔으며, 2006년 목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활동을 해왔으나, 노모의 병세 악화로 국내에서 시무할 것을 이 씨에게 요청했으나 부모님을 양로원에 두고 가라는 말에 구원파의 신앙생활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 씨가 밝힌 ‘이요한 씨 계열의 구원파’ 교세는 ▲국내 141개 개(350여 명 교역자)·해외 8여 개(80여 명 선교사)교회 ▲4만5000여 명의 신도이며, 약 5~600억 상

당의 공주갈릴리 수양관과 함께 1500여 역원의 빛을 지고있는 상황이다.

현재 구원파는 박옥수(대한예수교침례회 중앙침례교회)·이요한(대한예수교침례회)·유병인(기독교복음침례회) 계열로 3분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리스천연합신문>

뉴타운 개발로 임차 교회가 내몰리고 있다

“비영리 단체라며 보상 한푼 받지 못해”

‘희소식’이지만 세입자에게 날벼

락입니다. 뉴타운 개발을 마치 곳 뉴스인 양 전해온 정치인들이나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세입자의 고통을 모르긴 때 한가지입니다.

강상용 (영광교회.56) 목사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에서 3년째 임차교회를 맡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사다. 나이 40대 중반을 넘어 총신대를 졸업하고 2005년 11월 복음을 전하고자 남가좌동에 정착했다. 115㎡의 기존 교회건물을 빌려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돈이 없어 교회 옥탑방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생활했다.

까지 이사 간다고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더욱 열심히 복회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하지만 교회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교회가 비영리 조직이기에 조합으로부터 이전비용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실제로 2구역 모 교회의 경우 조합으로부터 이전비 명목으로 300만원 받았다. 이사비를 빼고 나면 교회 인테리어는 꿈도 못 꾸는 돈이다. 강 목사는 구청과 서울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이 같은 사실을 하소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조합과 잘 상의해 보라’는 대답뿐이었다.

맘으로 일군 터전 잃고 다시 광야로 성도들도 뿔뿔아... 60명서 10명으로 임대로 올라 인근지역 이주 막막해

그렇지만 전도만큼은 절대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근처 모래내 시장에서 매일 커피와 부침개를 나눠주며 전도를 했다. 화요일엔 영성 집회를, 매일 저녁마다 성경강해를 진행하고 기도회도 열었다. 부부가 발로 뛰다 보니 2년 만에 교인이 60명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이 2007년 11월 터졌다. 소문으로만 돌던 뉴타운 사업이 결정됐다. 그리고 오는 7월 30일까지 교회를 비워 달라는 안내장이 날아왔다. “60명이던 교인이 지금은 1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교인들도 뉴타운 개발로 이사해야 하기 때문이죠. 매주 일 몇 명씩 빠져나가는데,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그레도 목회자라고 성도를 앞에서는 잘 되라고 축복하고 위로하며 보냈습니다.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지만..

인근의 교회 한 곳은 문을 닫았다. 2개 교회는 이전 비마저 포기하고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웃교회는 25년간 정든 지역을 뒤로 하고 멀리 월계동

“뉴타운개발로 인근 상가 시세가 올라 지금처럼 보증금 3000만원에 월 45만원하는 곳은 눈 씻고 찾아 봐도 없어요. 아예랑 서울 은평구는 다 돌아다녔어요. 고양시까지 가봤는데 최소 3000 만원에 200만원은 달라고 합니다.” 곧 이곳을 떠나야 하는 강 목사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주일 학교 어린이들과 헤어지는 것이다.“복음을 전해준 아이들을 끝까지 돌봐주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안타까워요.”

마침 강 목사를 만난 날은 서울시 수색 증산뉴타운 개발이 발표되던 날이었다. 예배처소를 찾기 위해 교회 문을 나서던 강 목사가 빼앗는 말을 던졌다. 수색 증산 지역에도 임차교회 수 십개가 무너지겠조. 개발 논리 앞에 앞으로도 수많은 임차교회들이 무너지면 텐데 한국교회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재개발사업은 현재 전국 28개 도시 1330여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교회가 쫓겨나고 문을 닫는다. 전도가 안 돼서도 아니고 교인끼리 싸워서도 아니다. 목사가 목회를 못해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다. 엉뚱한 얘기 같지만 지난 4.9총선에서 너도나도 공약으로 내건 ‘뉴타운 개발’ 때문이다.

“요즘 예제현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자 간 뉴타운 공약 공방이 오가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땅을 가진 사람에게 뉴타운 개발이

왜 내몰릴 수 밖에 없나 “이전비만 받고 나가라”조합 결정이 법

재개발 사업으로 상가교회가 이사비만 받고 쫓겨나가는 현실은 현행법의 맹점에 있다. 보상 대상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나 유치원 등 비영리 조직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영리 사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최소 2개월분의 휴업보상비나 2년간의 폐업보상비,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받는다.

재개발 사업이 시군구청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민간사업이다 보니 조합의 결정이 법이 된다. 따라서 세입자는 정보력과 자금력을 갖고 있는 조합과 개별 협상을 벌여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 보상 대상에도

까지 못하는 임차교회는 이사비만 받고 자리를 비운다. 이 같은 문제는 법의 맹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태조사조차 않고 있는 정책 담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현실적 대안은 조합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가제울뉴타운 4구역 감정평가를 맡고 있는 중앙요리아 감정평가법인 신상운 감정평가사는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이전비를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상선의 김홍훈 변호사는 “재개발조합과 관할 구청의 미숙함으로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허다하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비영리 조직인 교회가 어떻게 보상받겠느냐

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법은 건설회사와 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이들은 재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법의 문제점이 심각하며 입법청원운동을 해서라도 보상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다.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이광재 사무관은 비영리 조직이 보상을 요구하는 문제는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한 적은 없다면서 현재로서 비영리 조직 보상을 포함하는 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우병 괴담 마귀의 세계...미국은 이익을 주는 국가

“광우병 괴담과 공포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세계다.”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가 광우병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조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임신형목사·이하 한기총)가 지난 18일 오후 5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한 ‘나라를 위한 특별

시키려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조목사는 “두려움과 형벌”이라는 설교를 전하면서 절반 정도를 할애, 광우병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광우병 공포는 우리에게 공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 마스컴에 의해 파

장돼 전달된 것이며,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세계”라는 것이 조목사의 주장지금 한국에 광우병 공포가 몰아닥치고 있으며 이 공포는 가정과 생활은 물론 마음속까지 침투해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고 결국 이성까지 마비시켜 곧 절망하고 패배하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했다조목사는 일부 매스컴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그 동안의 보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우고기가 지 먹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조목사는 “병보다는 마음에 일어나는 공포가 더 무서운 것”이라면서 “광우병 괴담은 병 자체보다 공포를 일으켜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책”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광우병 괴담은 미국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과 교역하며 잘 살게 됐다”고 말한 조목사는 “미국을 물러가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낙후될 뿐이며, 미국과 대결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반비를 강조할 경우 순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광우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조목사의 주장이다. “편소문이나 근거없는 괴변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된다. 내가 아는 바로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우려할 것이 없다”고 말한 조목사는 “전문가들이 괜찮다면 그런 줄 알아야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신뢰할 것을

당부했다. “아직까지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같은 공포를 확산시켜 같은 민족끼리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광우병 괴담에는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또한 “무엇 이념을 가진 단체들이 국민들을 선동하지 말아야 하고, 정치인들이나 특정 언론통도 이를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말보다는 과학자

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석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광우병에 대해 뭘 아니, 특정 언론에서 지푸 같은 영상을 반복해 보여주면서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충동한다”고 지적했다.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조목사는 말을 꺼냈다.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어떻게나 비난을 하는지 민망해서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시집은 지 석 달밖에 안된 머느리에게 왜 자식을 낳지 못하느냐고 다그치는 것과 똑같다”고 말을 꺼낸 조목사는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켜보아야 한다.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정부를 흔들지 말고 붙들어주며, 믿어주고 잘 협력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쓰촨성 지진 희생자 추모행사

제 4 차 북경올림픽(D-77일) 성공개최 기원 및 탈북난민 강제복송 중지호소 집회



<기독교사회적협인 탈북동포회>이하 탈북동포회에서는 5월 30일(월) 오후 2시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77일 남은 2008북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기원과 탈북난민강제복송중지 호소하는 제 4 차 집회를 갖는다. 이 집회는 탈북자들이 자신들을 휴대하고 팸파하며 심지어는 강제노역, 인신매매, 강제복송 등으로 고통을 안겨준 중국을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시하며 북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중국이 세계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을 개최국으로서 또한 국제인권협약 가입국으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복송을 중지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길 간절히 호소하는 4번째 집회이다.

<탈북동포회>는 남한에 거주하는 기독교탈북자들의 자치적 모임으로 07.6.17 결성되었으며 현재 26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탈북난민구출과 국내정착을 돕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인신매매와 성노예화로 고통당하는 탈북여성들의 긴급구출을 위한 <신들러 프로젝트>, 북경올림픽일인 2008년 8월 8일을 상징하는 200,888명이 강제복송중지 호소하는 <200888 사랑운동>, 중국내의 탈북여성인신매매의 실태를 조사 수집하는 <탈북여성인신매매백서발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신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중국을 향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중국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북경올림픽 D-1년 이었던 지난해 8.8일부터 3차에 걸쳐 집회를 가진바 있다. 또한 이번 4차 집회는 지난 D-100일이었던 4.30일 가지며 하였으나 북경올림픽성화봉송일 중국시위대에 의해 일어난 폭력시태로 인해 갖지 못했고 D-77일을 기해 갖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 쓰촨성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지진참사에 대해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목회는 이렇게...

한발을 달군 목회자 영성 컨퍼런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 교회의 크기, 성도 수 등과 같은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떠나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영혼이 좋아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영환 목사. 이 목사가 내건 표어는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다”는 언변력, 학력, 내세울만한 목회적 재능도 없었던 50여명의 개척교회 목회자에서 7,000여명의 대형교회 된 그것이다. 지난 달 7일 ~ 9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 대성전에서 두 번째로 실시한 2008년 목회자 영성 컨퍼런스는 전년도에 이어 1,000여명의 목회자와 사모에게 “목회가 쉽고 가볍고 재밌다”는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됐다. 이 목사는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

밋게 하기 원하는 목회자, ▲여러 재정체된 목회로 힘들어한 목회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목회를 원하는 목회자, ▲성도들(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때문에 목회가 버거운 목회자, ▲새벽예배나 설교가 형식화 되어 마음으로 고민하는 목회자, ▲1시간도 기도하기가 어려운 목회자, ▲목회의 초심을 잃어버려 변질 된 자신의 모습에 회의를 느끼는 목회자, ▲목회에 대한 비전을 잃고 힘들어 하는 목회자, ▲교회 부흥을 열망하는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목회에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하게 하며, 사명을 다지는 시간이 되게 했다. 강사로 나선 이 목사는 (개혁신학연

구원, 침신 M.Div, 침신 D.Min)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다”라는 목회철학을 가지고 한밭제일교회를 18년 동안 50평 예배당 1,2층을 300여명(유.초등 포함)이 출석했던 교회를 흥허의 기적을 이루고 성전대지 10,000여평에 3,000여평의 성전에서 7,000여명(유.초등부 포함)의 성도들과 행복하게 목회하면서 세계적인 목회를 꿈꾸고 있으며, 실내 체육관, 축구장, 게이트폴장 등을 지역 인 누구나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목사는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이라면 목회자체가 행복하고 신바람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목회자라면 교회의 크기, 성도 수 등 과 같은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주님이 좋

고, 교회가 좋고, 영혼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본질을 잃은 목회는 어렵고 힘들어 낙심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이 미치게 좋아 집니다. 이 목사도 하는데 왜 다른 목회자들이 못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전해 참석한 목회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또한 이 목사는 교회 개척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자신만의 목회노하우 몇 가지를 제시했다. “3년 만에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각오로 임하시고 세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씨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고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세미나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3년까지 모든 걸 집중해서 영권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확실한 프로그램한 두 개만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양육하시며 반드시 안정을 찾고 부흥의 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면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밋게” 될 것이며 목회는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과 교회성장의 비결을 밝혔다. 금번 목회자 영성 컨퍼런스는 정말 은혜롭고 시간 시간 천양과 기도, 1000여 명이 참석기도로 그 열기는 한발을 뜨겁게 달구는 용광로가 되어 전국을 강타한 성령의 대 역사였다.

■ 목회자 수필 ■

조련사를 바꿔라

얼마 전에 중국 계림에 가서 호랑이와 곰 쇼를 보았다. 옛말에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곰의 쇼를 보면서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 옛말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동물 중에 제일 느리고 미련한 것을 표현할 때 곰을 말했다. 그런 느낌보요, 미련한 곰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말은 곰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살 때의 말이다. 그러나 이제 는 다르다. 숙달된 조련사들이 곰을 훈련시켜 이제 는 곰이 쇼를 하며 재주를 부린다. 구르는 재주 정도가 아니다. 앞발을 들고 뒷발로 사람처럼 걸어가며 재주를 부린다. 심비즈와 북을 치면서 걸어가 고, 훌라호프도 돌린다. 그동안 우리가 상상 못했던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며 구경꾼들을 웃긴다. 곰의 쇼를 보면서 미련한 곰을 그토록 재주 부리도록 훈련시킨 조련사들의 노고를 생각해 보았다. 진정 조련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훌륭한 조련사를 만날수록 강도 높은 재주를 부린다. 우리는 그동안 조련사에 의하여 잘 훈련된 재주 부리는 물개 쇼, 원숭이 쇼, 코끼리 쇼, 악어 쇼, 호랑이 쇼, 말 쇼, 각종 새들의 쇼...등 많은 동물 의 쇼를 보아왔다. 신기할 정도의 동물 의 쇼는 조련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좋은 감독 하르크의 훈련을 받아 세계에서 월드컵 4위를 하는 기적 같은일을 이루어 냈다. 좋은 감독의 지도를 받아야 실력이 오르기에 좋은 감독을 거역의 연봉을 주면서 모셔 오는 것이다. 훌륭한 선수는 훌륭한 지도자인 감독과 코치 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서커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어린 소녀들의 연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연기를 잘한다. 사람의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뼈가 있는 것인 지 없는 것인 지, 이성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연기를 한다.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는 애초로 움도 느껴진다. 그러나 그렇게 재주를 부리는 이면에는 그들을 지도한 수준 높은 지도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종교의 헬렌켈러, 죽고 싶어 발버둥치는 한 소녀를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놓은 가정교사 설리반 여사가 있지 않은가... 설리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헬렌켈러는 이름없이 죽고 말았을 것이다. 누구를 지도자로 모시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 짐승은 조련사가 훈련하지만 사람은 실력있는 유능한 사람에게 지도를 받는다. 세계적인 유명한 예술인들은 유능한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지도를 받으며 살아야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조련사요, 최고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깜짝 놀랄 일을 할 수 있다. 곰 쇼, 호랑이 쇼, 코끼리 쇼 정도가 아니다. 중국 여자들의 서커스 정도가 아니다.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인간이 줄타기를 하고 줄 위로 오도바이를 타고 가는 묘기는 할 수 있지만 물 위로 걸어진 묘기를 부린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는 명령을 받고 그분의 지시대로 물 위로 걸어갔다.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는 명령을 받고 지팡이로 출렁이는 홍해를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졌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했다. 엘리



사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물속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누가 그런 묘기를 부릴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면 깜짝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재미없이, 희미하게 살 것인가? 언제까지나 남의 재주부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박수나 치고 살 것인가? 아니다. 남을 감동시키고 흥분시키는 묘기의 대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인생의 조련사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조련사요, 지도자를 능동하신 하나님으로 빨리 바꿔라! 그러면 기적의 연속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내 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 14:12)

구장회 목사(청주내덕교회)

세상이 미워지면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면 대개 변화산에 올라 봅니다. 변화산에 오르면 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마르고 났도록 여기서 살자고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변화산에 오르면 우선 시원한 나무 그늘이 많이 있습니다. 사방 팔방을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후덥지근하고 문제 많은 산 밑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육이 지배하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드러나고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들만 살고 있는 집안에 부지런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동안 몰랐던 게으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부지런한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 누굴까?’라는 드라마를 보면 둘째 며느리가 갓 시집은 첫째 며느리를 은근히 미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지나치게 깔끔을 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이 깔끔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정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정직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부정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직한 사회는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앉아 답소를 나누게 되었습니 다. 먼저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당신은 왜 지 같이 생겼다고 말했습니 다. 이에 무학대사는 이성계에게 전하는 쪽 부처님 같이 생겼다고 말했습니 다. 이성계가 나는 대사를 왜 지 같다고 했는 데 대사는 나를 부처 같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 다. 이에 무학대사는 부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왜지 눈에는 모든 것이 왜지로 보인다 고 했습니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모든 것이 못마땅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미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충항이 어머니 월매가 이도령을 문전박대한 것은 이도령이 장원급제하여 임행여사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도령이 거지가 아니고 임행여사인 것을 알았더라면 대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세상 안목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 안목을 가지고 교역자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신령한 일은 신령한 안목으로만 평가해야 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충항이 어머니 월매가 이도령을 문전박대한 것은 이도령이 장원급제하여 임행여사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도령이 거지가 아니고 임행여사인 것을 알았더라면 대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세상 안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은 저들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으면 저들이 예수님을 미워할리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할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창조한 우주와 자신의 아버지인 것

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더더구나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사람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장관이나 판사라고 하면 우러러 보고 목사라고 하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호텔에 광장하게 보고 교회는 외도만 보고 하찮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 여러분은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기관입니다. 세상이 목사를 어떻게 보든 여러분은 목사를 우습게 보든 안됩니다. 목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직분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핍박한 세상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핑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사망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저들은 죄값으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은 저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모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영인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친히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전도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 칼럼 ■

삶은 문제와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다

석가모니께서 이르기를 사해(四海) 가운데서 삶을 가장 큰 고한(苦海)라 하였다. 삶이 고행에 이 평범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행해 아니게 된다. 삶이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게 되고 이를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 그런 경지에 이르러 삶 의 문제에 대하여 그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 삶이 대수롭지 않고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는 깨달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억울하고 가혹하다고 불평을 터뜨리게 된다. 삶은 본질적으로 문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과 고통을 극복하여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삶은 의미를 지니게 되고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된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이 되느냐의 승패는 문제들과 고통을 얼마나 해결하고 극복하여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들의 정신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은 문제들에 직면하여 극복하고 고통에 부딪히 자신을 승화시켜 나가면서 체득하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정신적인,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려면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는 마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숙제문제를 내어주어 풀어보도록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 해결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이점에 대하여 구약성경 중의 시편 119편에서 다음같이 일러 주고 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시편 119편 67절)

요한계시록1:7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